

“자신이 부처임을 알고 당당하게 살자”

포교사 등 1만여 불자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

일반 752명 전문 79명
국제포교사 28명 품수식

전국의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법의 의지를 새삼 다지고 보살행을 서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광명희)은 지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 조계사에서 '제12회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신규포교사 품수식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현재 활동 중인 4000여 명의 포교사를 비롯해 5000여 명의 전국 포교단체 소속 재가불자 등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계를 받고 밤을 새워 정진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는 포교사들이 지계(持戒)의 정신을 점검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자리다. 8재계란 팔관재계(八關齋戒)의 준말로 재가 신도들이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받아 지니는 계율을 뜻

지난 9월 27, 28일 이틀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 '제12회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에 참석한 포교사 5000여명 등 1만여 불자는 팔재계를 받고 밤을 새워 생활속에서의 보살행을 서원했다.

한다.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몸을 치장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등 8가지 항목이다. 전계대회상으로 나신 포교원장 지원스님으로부터 팔재계를 받은 포교사들은 철야정진을 통해 참된 불제자로서 살겠다는 보현행원을 마음에 새겼다.

이와 함께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선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 국제포교사 28명이 각각 품수자를 송택규(85)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홍현승(23) 씨다. 이밖에 대전충남지역단 여갑동·황경옥 씨, 충북지역단 임병국·최경숙 씨 등 부부합격자도 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날 법회에선 종단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붓다로 살자'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포교사들은 진제 중정예하가 직접 쓴 '붓다로 살자' 휘호를 받아들고 숭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 '붓다로 살자'를 주제로 특강을 한 자성과 쇠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은 "사람이 곧 부처이며 여러분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부처의 삶"이라며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적이고 당당하

게 살라"고 격려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청계천 촛불행진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전국의 포교사들과 재가불자들은 수계식을 마친 후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국민행복을 기원하며 27일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청계천 광장을 걸으며 촛불행진을 벌였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인증샷 찍고 콘테스트도 하고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 선포

행사기간 모든 프로그램 무료...“지속 운영”

올 가을 아름답고 전통 있는 사찰에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10월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2014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Week)을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전통사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전승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통사찰 주지사님들과 가진 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사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시비 1억원을 투입, 앞으로 '전통사찰 주간'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사찰 주간 행사는 1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2014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Week)'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통사찰 58곳 전역에서 시행된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관할 구청장 및 국회의원,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통사찰 순례 프로그램인 '아이 러브 서울, 아이 러브 템플 스토리 콘테스트'를 비롯해 서울 시내 사찰 5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어보는 '전통사찰 가고(Go) 인증샷 찍고(Go)'가 진행된다. 순례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거쳐 10여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 뒤 행사 기간 동안 체험한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기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심사 후 상금, 기념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조계사와 봉은사 등을 순례하는 '도심 속 전통사찰 투어'와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인근 사찰인 진관사와 삼천사를 순례하는 '전통사찰 따라 마실길 걷기'도 펼쳐진다.

또 11일부터 12일까지 진관사 경내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126호 국행수륙재 시연행사'가 열리고 화계사, 금선사, 묘각사 등에서는 무료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11일 서울 흥천사 느티나무 광장에서는 '불화장과 함께하는 불화 및 단청 그리기' 체험 행사와, 다음날인 12일 오후3시 같은 장소에서 작음음악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템플스테이, 산티아고에 우뚝 서다 (스페인)

국제연합 '세계관광 우수사례'로 비전 소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해 템플스테이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했다. UNWTO와 스페인 관광청이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산티아고 델라 콤포스텔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업단은 템플스테이의 역사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처음 열린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는 관광분야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

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종교 지도자,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성지 순례 관광과 문화유산, 자연환경, 순례 관광의 지속성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사업단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명법스님(전 국제선센터 국제국장)은 "전통사찰에 머물며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했다"고 템플스테이를 소개했다. 또한 정신적 치유와 사회 통합 기여 부문에 관한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공유하여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어현경 기자

지면안내

내년 세계평화기원대회
어떤 지도자를 참석하나 3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름다운 어울림' 4면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한글창제 비밀이야기' 7면

'불광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11면

청담스님 사상 조명한다

본지와 청담장학문화재단이 손잡고 불교신문 초대 발행인으로 근·현대 불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다.

불교신문사와 청담장학문화재단은 지난 9월30일 불교신문사 사장실에서 '청담대중사 조명' 기획연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지와 청담장학문화재단은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조명하는 기획연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본지 사장 성직스님은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은 "종단과 많은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청담스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청담장학문화재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불교신문 문서포교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교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 주신 기금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본지 문서포교기금 3000만원 기탁



본지와 청담장학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기획연재를 실시한다. 사진은 9월30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불교신문 문서포교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본지 사장 성직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김형주 기자

을미년 불기2559년(2015년도)달력은 (주)조계종출판사로 주문하세요

기성달력(37종)외 독판제작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맞춤제작해 드립니다.

* 기성숫자판 디자인이 새로워졌어요 *

아름다운 산사, 암자, 우리의 전통문화, 세계 속 부처님의 발자취 등 사부대중의 마음에 꼭 드는 14개의 다양한 테마와 2종의 숫자판으로 구성된 37종의 품격높은 작품을 기성 달력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_ <http://www.jogyebok.com> E-mail _ jogyebok@naver.com 웹하드 _ ID:inyeon PW:6390